

제31차 세계경제포럼 발표를 보고나서

안 경 문

부산시 동구 환경위생과장

지난 1월27일 제31차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환경지속지수(ESI)’가 우리나라의 경우 100점 만점에 35점으로 122개 나라중에서 탄지니아(94위), 요르단(96위)사이의 95위로 나타났다. ESI는 컬럼비아, 예일 대학등이 2년간 각국 통계를 22개 지표에 따라 분석해 작성한 지수라고 한다. 등위가 비슷한 나라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한 세계지도에서 북미, 유럽, 일본은 상위권으로 주홍색이고, 한국은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와 함께 하위권으로 노란색이다. OECD 소속 30개국중 50위에 못든 나라는 폴란드(58위), 벨기에(79위), 멕시코(73위), 우리나라뿐이다. 또한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포르투갈(20위), 체코(29위), 그리스(41위)와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90위이하 국가는 모두 저개발국이라는 것이다.

이 발표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경제지수가 이 정도라면 야단법석일 것이나 환경에 대한 평가는 관심이 없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환경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을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과연 환경은 21세기가 되어도 영원히 비경제적인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타임머신을 타고 약 9년 전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자. '92.6.5 제20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 선언이 있었다. 그 전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60년대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온 산

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지금 적절히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 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보전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는 환경전문가와 경제전문가들이 각각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전문가와 경제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환경과 경제를 통합관리가 되는 예(yes)프로그램의 운영체제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인들이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환경경제학의 마인드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세부적으로 정책결정 이전에 정책형성 과정이 중요하므로 지식인의 지혜를 총집결하여 환경과 경제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학문의 분야별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취득자가 약 3만명이나 된다고 하니, 환경지속지수를 평가한 대학출신의 박사도 있을 것이므로 환경전문가와 경제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면 환경과 경제의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우리 속담을 교훈삼아 가래로 막으려지 말고 호미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호미로 막는다는 것은 투자는 적게 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경제원리의 실현이며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에 보다 접근해서 비경제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대안의 제시가 바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아닌가 한다. 100점 만점에 35점의 평가 점수는 100점의 자연환경에서 65점(가래값)을 훼손하여 35점이 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앞으로는 35점(호미값)을 훼손하여 65점으로 평가받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개발하거나 훼손이 되어도 적게 훼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 환경담당 공무원이 중매기법으로 다방면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과의 지혜를 모아 환경친화적 개발을 이룩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로를 건설할 경우에 상·하수도, 전화공사, 전기공사 등이 일괄공사가 되어야 차후에 도로를 훼손하는 일이 적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와 공개적인 사업추진으로 타부

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은 개발과 대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하는 기법이 필요하다. 즉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 그 지역의 처리용량을 예측하여 지방재발행을 통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처리구역의 건축허가시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없이 바로 연결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만원(가래값)이 소요되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95만원(호미값)정도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건축허가신청자에게 정화시설의 별도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환경을 보호하면서 참여행정을 실천해 나가

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후대책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이 늦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의 발표를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국민의 모든 지혜를 모아 환경친화적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환경친화적 개발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개발의 모형을 제시하고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대안의 제시로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일선 환경과장을 개발의 중매쟁이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

시사용어 해설

• 리파이낸싱(Refinancing)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조달하는 차입금. 막대한 규모의 부채로 어려운 상태인 채무국·채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기존 채무 변제뿐만 아니라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리파이낸싱은 주로 자금조달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금리가 하락세를 유지할 때 은행간의 경쟁을 이용, 기존의 고금리차입금을 상환하고 이를 금리가 보다 낮은 차입금으로 대체한다.

- 편집 실 -